

그래미 “라이즈·비취, ‘올해 주목할 아티스트’”



▲ 라이즈, 사진=SM엔터테인먼트

보이그룹 라이즈와 걸그룹 비취(VCHA)가 미국 그래미가 선정한 ‘올해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에 선정됐다.

4일 그래미닷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라이즈는 K팝 보이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2024년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 25’에 이름을 올렸다. 그래미는 “라이즈는 이미 K팝 5세대 리더 중 하나로 자

리매김했다”며 “라이즈에게 2024년은 더욱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팝 걸그룹 중에서는 JYP엔터테인먼트가 주도해 배출한 한미 합작 글로벌 걸그룹 비취가 같은 명단에 올랐다.

그래미는 “JYP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 박진영과 리퍼블릭 레코드 최고경영자(CEO) 몬테 립먼은 K팝 시스템 기반으로 트레이닝 받은 첫 미국 현지화 걸그룹을 발표하며 역사를 썼다”고 평가했다.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 25’는 목적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희망적 시각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레벨 업’ 스토리를 지닌 아티스트를 선정한다.

한편 라이즈는 2005년 발표된 밴드 ‘이지(iizi)’의 히트곡 ‘응급실’을 샘플링한 새 싱글 ‘러브 119’를 오는 5일 오후 6시에 발매한다. 비취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정식 데뷔 싱글 ‘걸스 오브 더 이어(Girls of the Year)’를 공개한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사실상 은퇴 선언



▲ 브리트니 스피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2)가 사실상 대중음악계 은퇴 선언을 했다.

3일 미국 빌보드 등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대부분의 뉴스가 쓰레기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내가 불특정 사람들과 새 앨범을 만들고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난 결코 가요계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미국 연예매체 페이지시크스 등은 스피어스가 정규 10집을 제작하기 위해 찰리(Charli) XCX, 줄리아 마이클스(Julia Michaels)와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피어스의 마지막 앨범은 2016년 내놓은 정규 9집 ‘글로리(Glory)’다. 2021년 영국 거물 팝스타 엘턴 존과 ‘홀드 미 클로저(Hold Me Closer)’를 발매한 적이 있다.

스피어스는 자신이 ‘고스트라이터’(ghostwriter·대필작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난 재미로 곡을 쓰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곡을 쓴다.”면서 “지난 2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20곡이 넘는 노래를 썼다. 난 그런 작업을 즐긴다”고 했다.

스피어스는 1999년 정규 1집 ‘베이비 원모어 타임’으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2003년 발매한 4집 ‘인 더 존(In the Zone)’은 현재까지 명반으로 회자되는 2000년대 팝신을 품었다.

‘미키마우스’ 저작권 풀리자 2차 저작물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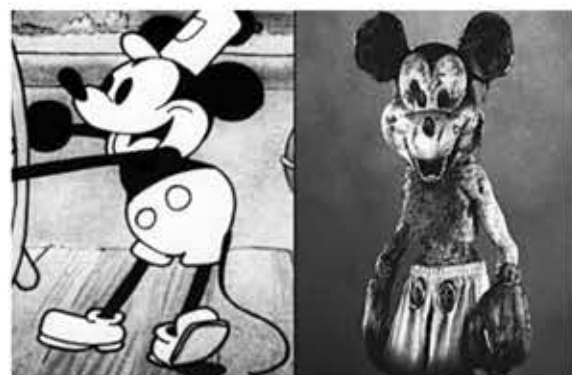
월트디즈니가 소유한 저작권 가운데 ‘초대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1일부터 자동 만료됐다.

이와 맞물려 미키마우스를 활용한 각종 공포 게임 등이 개봉되는 등 2차 저작물이 계속 창작·공개되고 있다.

1928년 11월에 개봉한 단편영화 ‘증기선 윌리’의 주인공 공인 초대 미키마우스가 저작권 만료에 따라 ‘공개 저작물(Public Domain)’로 전환됐다. 공개 저작물은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 미국은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물의 저작권을 95년 동안 보장한다.

저작권 만료와 동시에 게임 개발사 ‘나이트메어 포지 게임스’는 초대 미키마우스의 모습을 기괴하게 그린 공포 게임 ‘인페스테이션 88’의 예고편 영상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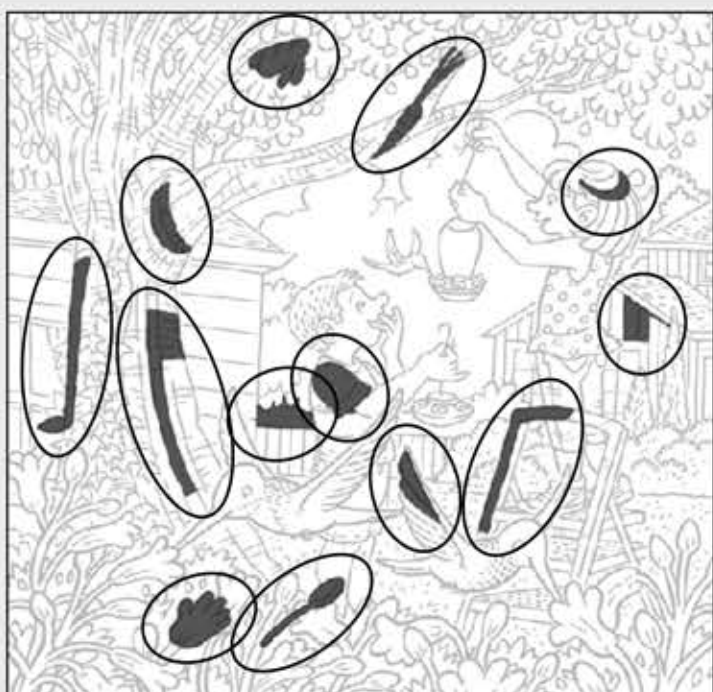
영상 속의 게이머들은 방호복을 입고 캐릭터를 조작해 격실을 돌아다니면서 쥐를 죽이고, 미키마우스에게서 도망쳐야 한다.



▲ 1928년 작품 ‘윌리의 증기선’에 나오는 초대 미키마우스(왼쪽)와 2024년 게임 ‘인페스테이션 88’에서 기괴하게 그려진 초대 미키마우스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다만 이번에 공개 저작물로 전환된 미키마우스는 ‘1928년 초대 미키마우스’로 한정된다. 초대는 흑백으로 팔다리가 길고 얼굴이 작아 지금 알려진 미키마우스와는 다소 다르다. 익히 알려진 빨간 반 바지에 흰 장갑을 낀 후대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은 여전히 디즈니 소유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숫자퍼즐 정답

4	2	7	8	6	9	5	3	1
5	6	8	1	3	4	9	2	7
9	3	1	2	7	5	8	6	4
1	7	4	9	8	3	2	5	6
2	8	3	4	5	6	1	7	9
6	9	5	7	1	2	3	4	8
8	5	2	6	9	7	4	1	3
3	1	6	5	4	8	7	9	2
7	4	9	3	2	1	6	8	5